

건축적 경험의 내재된 즐거움

The Inherent Pleasure in Experiencing Architecture

대담자 / 최윤경(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설계자 / 우시용(시공건축)

by Woo Shi-Yong & Choi Yoon-Kyeong

일 시 / 98. 7. 13(월) 11:00~

장 소 /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대담장경(왼쪽: 우시용, 가운데: 최윤경, 오른쪽: 김성홍)

최윤경 _____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종합문화관의 성공적인 완성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 건물의 기본적인 성격과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시용 _____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학입니다. 따라서 연구 및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공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연구의 중심체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연구의 결과와 문화적 생산품이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그 매개체로서 대학 내에 종합문화관을 설립하여, 이 종합문화관이 도시문화 기능의 연구, 전시, 공연, 발표, 국제교류 등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국제회의장, 식당, 서울시정연구소, 강의실 등이 있는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서울시 공무원이나 관련 산업체 종사자가 이 건물을 이용하여 시립대의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고, 스스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산학협동이 이루어져 대학발전 및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종합문화관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최윤경 _____ 종합문화관 건물이 초기에 가

지고 있었던 프로그램과 완성될 시점의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요.

우시용 _____ 종합문화관은 초기에 기본적인 성격대로 전시, 공연, 발표, 국제교류, 연구 등의 프로그램이 대학 관계자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충실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여 1층에는 전시장, 식당, 공연장을 두고, 2층에는 박물관, 국제회의장을 두었습니다. 1층에 전시장을 둔 것은 1층 휴게홀이 전시장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 전시공간은 후정으므로까지 연결되어 야외조각장이 됩니다. 식당은 학생회관에도 있지만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2층 로비에서 다과회나 회식을 할 경우 이를 서브하기 위한 것입니다. 2층에는 박물관, 국제회의장 및 이를 위한 넓은 로비를 두었습니다. 1층 홀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하면 연결됩니다. 고층부인 3, 4층에는 강의실, 5층에는 연구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전에 교내 강의실의 부족으로 박물관 기능이 강의실로 바뀌어 그 부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2층 로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후 공사가 발주되어 마감공사 완료 시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서울시에 초청되어 명예박사학위를 시립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리셉션장



시립대 종합문화관



시립대 종합문화관 2층 국제회의장

소의 부족으로 1층 전시장이 식당으로, 식당이 휴게실로 바뀌게 되어 전시장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과계열의 실험실이 4층, 5층에 위치하게 되어 명칭이 자연과학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윤경 _____ 그렇다면 이러한 번덕스러운 프로그램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시용 _____ 박물관이 강의실로 바뀌게 되면서 공연장위에 새로 생긴 강의실에 채광 및 환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테라스를 두고 상부에 보를 노출시켜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식당은 당초에 전시장으로 설계되어 외부 마감공사후에 용도가 바뀌게 되어 외벽에 창이 없습니다. 전시장의 용도에 맞게 낮고 높은 변화있는 공간과 유리블럭으로 된 천창이 있었기 때문에 창이 없는 공간에서의 폐쇄감이 덜하게 됐습니다. 만일 외부 마감공사전에 용도가 결정되었다면 광장 쪽으로 창을 내어 광장의 전망을 식당내로 끌어들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당초 실험실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직 핏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직 핏트의 부분적인 해결로 외부로의 노출 배관을 포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외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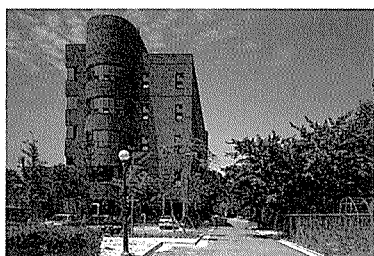
최윤경 _____ 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하는 건물이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과 달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쭙어 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대학의 건물이 가져야 하는 특징과 설계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시용 _____ 대학 건물은 일반 상업건물과는 달리 외형적으로 오랜 수명이 유지되도록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물이 비유행성 외관을 가져야 하며,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하나의 소도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외장 재료의 선택과 주위 건물과 조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차별을 두어 인식성을 높이고 특히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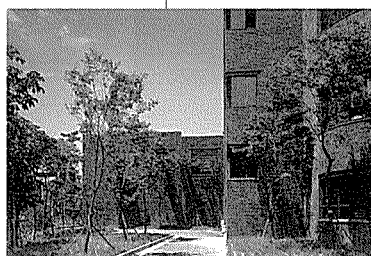
자들에게 내부공간이 기억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순우 선생님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에서 건축에 관해서 쓴 글중에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에 대하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운치의 멋이요, 하나는 그 속에서 몸을 담고 느끼는 즐거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건축을 접할 때의 느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대학 건축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배봉산에서 이어지는 낮은 능선을 따라 대학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세월이 흘러 잘 가꾸어진 나무들 사이로 힐끗힐끗 보이는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경 _____ 일반적인 도시의 컨텍스트 내에 위치하는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내에도 주변에 많은 다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종합문화관을 설계하실 때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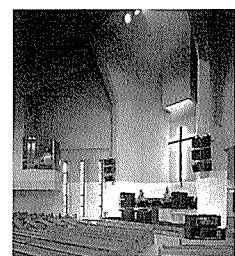
우시용 _____ 시립대의 캠퍼스 내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종합문화관이 건립되는 대지는 시립대 동남단의 삼각형 대지입니다. 이 대지는 시립대 경계선에 위치하여 대지 내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북측에는 운동장과 녹지 공간이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마주보며 둘러싸고 있어 시립대의 중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측에는 전농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막히며 중학교 휴식시간에는 꽤 시끄럽습니다. 북측으로 강의실 및 연구실을 두어 좋은 전망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북측의 전망은 항상 햇빛을 받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 많은 남측 전망보다 항상 밝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문화관 북측에 면한 실들은 잔디광장을 통하여 멀리 학교내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5층에 연구소를 두었다면 아주 좋은 전망을 갖는 연구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망 및 소음으로 좋지 않은 전농중학교측의 삼각형 부분에는 창이 필요하지 않은 공연장, 국제회의장 등을 두어 소음 및 시선차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문화관과 인



시립대 종합문화관



시립대 종합문화관



잠실교회

집한 학생회관과 대강당은 외장재가 붉은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은 종합문화관과 연결되어 서측 언덕의 수립대로 계속됩니다. 이 연결되는 건물들을 붉은 벽돌로 마감하여 동질성을 주며, 시립대란 하나의 소도시 속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융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최윤경 _____ 종합문화관의 주출입구에서 홀과 휴게홀을 거쳐 후정으로 연결되는 강한 축, 그리고 3개층까지 오픈된 공간처리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특이합니다. 이 부분의 공간적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우시용 _____ 종합문화관은 지금 말씀한대로 주출입구에서 홀, 휴게홀을 거쳐 후정으로 연결되는 시선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선축의 흐름은 내부에서 이동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길에는 식당, 휴게실, 공연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 길은 공연장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도 하며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 우리의 마당처럼 여러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1층 전시장의 용도가 식당으로 바뀐후 이 길은 쓰임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층까지 오픈된 공간은 이 건물의 이용자에게 내부 홀에서 시각적인 폐쇄감을 덜고 2층, 3층으로 연결된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3층 상부의 측창은 이 건물의 이용자에게 출입구 홀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빛을 느끼게 해 줍니다. 외부에서 내부를 상상치 못하고 내부에 들어섰을 때의 공간의 확산은 방문자에게 하나의 기억으로 남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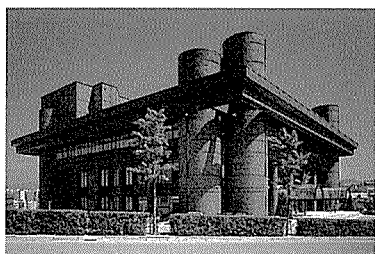
최윤경 _____ 연계되는 질문입니다만 건물의 정면 주출입구가 캠퍼스내의 도시적 가로축과 의도적으로 맞추어져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는지 알고 싶군요.

우시용 _____ 종합문화관의 주출입은 시립대 정문에서 연결되는 두 개의 진입도로중 남쪽 도로로 연결됩니다. 북쪽 도로는 대학본부를 지나서 각 건물로 연결됩니다. 당초 계획시 남측 도로를 종합문화관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았습니다. 이 도로는 광장을 지나 배봉산 기슭으로

하여 캠퍼스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관은 성격상 외부인과 학생의 이용을 고려할 때 출입구가 2개 필요합니다. 건물을 동서로 연결되는 세로축에 맞추어 전면에 광장을 면하게 하여 정문과 연결되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두고 이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주출입구를 두어 외부인의 이용이 편하게 하였습니다. 고층부 동측의 부출입구는 가로축에 맞추어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장의 외부공간은 주출입구 홀을 통하여 후정으로까지 시선축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선축은 이 건물의 내부 길이며 이 길에 각 공간들이 연결됩니다. 가로축에 주출입구를 맞추지 않은 것도 광장이란 외부공간을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 융해시켜 후정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최윤경 _____ 종합문화관이 풍기는 이미지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외관과 입면의 경우, 초록색 H형강을 이용한 인방 혹은 건물 끝부분의 원형처리 등으로 인해 상당히 화려할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절제된 느낌입니다. 물론 이러한 느낌은 앞서 말씀드린 내부공간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출입구 홀의 경우에서도 수평적 수직적 개방으로 인해 마치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공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절제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건물만을 위한 특정의 의도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소장님의 일상적인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요.

우시용 _____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김수근 선생님은 건축을 "건물 + α"라고 말씀하면서 α를 맛, 멋 등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건축이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관이나 내부 공간에서도 멋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적으로 마감하는 건물에서는 창문상부에 어떤 형태로든 벽돌의 하중을 받아주기 위한 인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인방을 노출시키거나 L형강을 사용하여 외부에 붉은 벽돌을 얹어 놓습니다. 종합문화관의 경우 H형강을 노출시



광명 시민회관



일신방직(주) 청원공장 기숙사, 사택



삼호침례교회

켜 인방 역할을 하게 하고 녹청페인트로 마감하여 철골프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계단실이 있는 붉은 벽돌로 된 원형 샤프트는 벽돌이 갖는 각진 형태를 원으로 처리하여 벽돌로 된 건물은 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원형으로 된 계단실 부분은 종합문화관으로 진입시 제일 먼저 건물에서 접하는 부분이 됩니다. 계단실을 원형으로 하고 전시장 외부도 원형으로 같이 처리한 것도 진입시 각진 부분이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한 것입니다. 고층부의 학생 출입구 부분의 휴게실을 반원형으로 처리한 것도 외부에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휴게실 내에서의 외부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학건물이라고 해서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계단실, 화장실이 있거나 복도 등이 위치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좋은 공간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스타일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이용자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한다면 누구든지 넉넉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제가 설계하는 건물에는 변화있고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경 _____ 건물의 외관과 공간에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건축가들의 바람이겠으나, 소장님의 경우에는 이를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내재된 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부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김수근 선생의 공간시절에 일하던 많은 건축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기 쉽게 '공간출신' 들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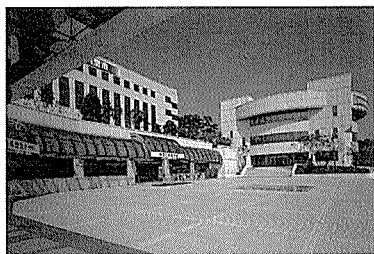
우시용 _____ "공간출신"이란 말은 건축가로서 확실한 뿌리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수근 선생님은 제 입사초기에 프랭크로이드 라이트, 일본에서 활약하던 라이트의 제자 안토닌 레이몬드(제국호텔을 마무리 함), 요시무라 준조(동경예대 교수), 김수근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기억됩니다. 김수근 선생님도 자기의 뿌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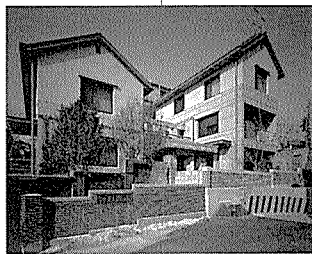
거지요. 공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 하는 말은 공간출신이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 일 것입니다. "공간출신"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르겠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971년부터 1986년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까지 공간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김수근 문하생들이란 말이 더 적합할지 모릅니다. 제가 공간에 있는 동안 백오십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간을 거쳐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들 중에는 십년이 넘게 김수근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김수근 문하생이었음을 긍지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김수근 선생 별세 후에 모두 각기 그때 생활하던 것을 기본으로 각기 자신의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경 _____ 끝으로 건축계의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되도록 너무 어둡지 않게(?)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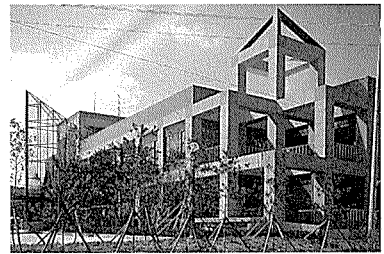
우시용 _____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의 구조조정, 통폐합, 졸업생의 취직의 어려움 등 그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배가 고플 때 좋은 작곡이 나온다는 말도 있지요. 건축가도 예술가에 속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든 면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탁월한 건축도 좋지만 건축의 기본적인 것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건축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이 신념으로 끊임없이 현실에 도전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기로 이 시기를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리시청사



원서동 주택



북부장애인 복지관